

아깝다 사이클링히트...김하성, MLB 첫 4안타 대폭발



미국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이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 4회에 2루타를 치고 있다. 그는 이날 MLB 진출 후 처음으로 4안타를 기록했으며 샌디에이고는 13-5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5타수 4안타 2타점 2득점 맹활약 DH 1차전 승리 견인
DH 2차전 4타수 무안타...샌디에이고 2경기 '짝쓸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27)이 빅리그 데뷔 첫 4안타 경기를 펼치며 팀 역전에 앞장섰다. 김하성은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와 더블헤더 1차전 홈 경기에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4안타 2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 2회 첫 타석부터 김하성의 방망이는 날카롭게 돌아갔다. 1사 주자 없는 가운데 콜로라도 선발 라이언 펠트너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끝없는 좌익수 앞 안타로 출루했다. 0-3으로 끌려가던 4회 1사 1루에서 맞이한 두 번째 타석에서는 이번에도 펠트너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좌익수 쪽 깊숙한 2루타를 터트렸다.

김하성의 안타로 1사 2, 3루 기회를 잡은 샌디에이고는 오스틴 놀라의 희생 플라이로 1점, 트랜트 그리섬의 2점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5회에는 김하성의 배트에서 역전 결승타가 나왔다. 3-3으로 맞선 2사 1, 2루에서 타석에 선 김하성은 제이크 버드의 초구 싱커를 때려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이때 홈까지 파고든 2루 주자 윌 마이어스는 처음에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세이프가 반복됐다. 7회 내야 뜬공으로 숨 고르기를 한 김하성은 8회 마지막 타석에서 4안타를 완성했다. 무사 1루에서 타석에 등장해 타이 블락과 풀카운트 대결 끝에 외야 우중간을 가르는 1타점 3루타를 작렬했다.

단타 2개와 2루타 1개, 3루타 1개로 사이클링히트에 오른 김하성은 홈런을 때려냈다. 김하성은 그리섬의 내야 땅볼 때 홈을 밟아 득점을 추가했다. 김하성의 활약을 앞세운 샌디에이고는 더블헤더 1차전에서 콜로라도에 13-5로 역전승했다. 김하성은 더블헤더 2차전 역시 7번 타자 유격수로 자리를 지켰지만, 4타수 무안타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1차전이 끝난 뒤 0.252까지 올라갔던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249(321타수 80안타)가 됐다. 김하성은 침묵했지만, 샌디에이고는 3-2로 승리해 더블헤더 2경기를 모두 쓸어들었다. 그리섬은 2-2로 맞선 9회말 1사 주자 없는 가운데 솔로 아치를 그려 승리에 앞장섰다. 트레이드를 통해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은 장발의 강속구 왼손 투수 조시 헤이더는 9회 등판해 1이닝 무실점으로 샌디에이고에서의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연합뉴스

소토 품은 샌디에이고 트레이드 최고 승자

휴스턴·시애틀도 전력 보강 탄탄

술한 화제를 뿌린 미국프로야구(MLB) 트레이드 시장은 3일(한국시간) 마감됐다. 대부분 미국 언론은 빅리그를 대표하는 차세대 강타자 후안 소토(24)를 품에 안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최고의 승자로 꼽았다. 또 필요한 전력을 충실히 채운 휴스턴 애스트로스과 루이스 카스티요를 데려와 선발진을 강화한 시애틀 매리너스를 역시 승자로 평했다. 샌디에이고는 여러 경쟁팀을 따돌리고 워싱턴 내셔널스의 15년간 4억4천만달러(약 5천761억원)에 달하는 메가톤급 장기 계약 제안을 거부하고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 소토를 데려왔다. 소토와 1루수 조시 벨을 받고 워싱턴에 루크 보이트, CJ 에이브럼스 등 주전급 내야수 2명과 유망주를 포함해 6명을 넘기는 트레이드에 성공했다.

샌디에이고는 이미 재능 넘치는 거포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23)를 보유한 테라 타티스 주니어와 소토가 일으킬 태풍급 막강 타선 위력에 빅리그 전체가 크게 주목하고 있다. 1루를 보던 에릭 호스머마저 별도 트레이드로 샌디에이고를 떠나 보스턴 레드삭스로 옮기면서 김하성은 그동안 라인업에서 한숨을 먹던 세 동료와 차별하고 새로운 선수들과 후반기 호흡을 맞춘다. 샌디에이고는 또 신시내티 레즈에서 베테랑 내야수 브랜던 드루리를 영입하고, 강속구 마무리 투수 조시 헤이더를 밀키 브루어스와 트레이드로 데려오는 등 투타 전반의 전력을 보강했다. 샌디에이고의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올해는 물론 미래를 동시에 고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 11.5경기 뒤진 내셔널 리그 서부지구 2위인 샌디에이고는 포스트시즌

디비전 시리즈(6전 3승제) 직행권이 걸린 지구 1위 등극은 어렵지만, 올해부터 가을 야구 출전팀 확대와 와일드카드 시리즈 출전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폭풍 트레이드로 '윈 나우'(win-now) 전력을 꾸려 가을 단기전에서 충분히 뒤집을 힘을 비축해 샌디에이고는 올해 월드시리즈 우승 확률도 높였다.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1위이자 리그 승률 2위 팀인 휴스턴도 1루수 겸 지명 타자 트레이드 맨시니, 포수 크리스티안 바스케스, 왼손 구원 투수 윌 스미스를 영입해 약점을 메웠다. 휴스턴에 이어 지구 2위를 달리는 시애틀도 올해 4승 4패, 평균자책점 2.86을 기록 중인 우완 카스티요를 데려와 선발진을 강화하고 2001년 리그 챔피언십시리즈 이래 21년 만에 가을 야구를 할 준비를 끝냈다. 에이스 로비 레이, 카스티요, 로건 길버트, 그리고 한국프로야구 출신 크리스 폴렉센, 마르코 곤잘레스가 이를 선발진은 어느 팀에 견줘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연합뉴스

韓 첫 세계선수권 은메달 수상혁 육상연맹 포상금 5천만원 받았다

세계육상연맹 포함 총 9천600만원 수령

'스마일 점퍼' 수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 포상금 5천만원을 받았다. 대한육상연맹은 3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포상금 수여식'을 열었다. 대한육상연맹 경기력향상금(포상) 규정에서 명시한 세계육상선수권 우승 상금은 1억원이다. 2위에 오르면 5천만원, 3위는 2천만원을 지급한다. 수상혁은 지난 7월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5를 뛰어, 2m37을 넘는 무타즈 에사 바심(31·카타르)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스마일 점퍼' 수상혁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 은메달 포상금 수여식에서 임대기 대한육상연맹 회장으로부터 포상증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육상연맹은 규정에 따라 수상혁에게 5천만원을 지급했다. 김도균 한국육상대표팀 수석도약 코치는 1천250만원, 이광필 국군체육부대 감독은 1천만원, 수상혁을 발굴한 유종형 대전육상연맹 사무국장은 250만원을 받았다. 임대기 대한육상연맹 회장은 "수상혁이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쓸 때까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들께 감사하다. 포상금 수여식이 열린 오늘은 한국 육상에 무척 의미 있는 날"이라며 "앞으로도 역사를 바꿔나갈 수상혁과 한국 육상을 응원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체육회와 함께 '2024 파리올림픽 대비(우상혁) 특별 전담팀'을 확대해 2023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수상혁 선수가 세계 정상에 설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수상혁은 이미 세계육상연맹으로부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위 상금 3만5천달러(약 4천600만원)를 수령했다. 유진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 획득으로 수상혁이 받은 상금은 총 9천600만원이다.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2m35를 뛰어 4위에 오른 수상혁은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한국 신기록 포상금 2천만원'에 8천만원을 추가해 총 1억원의 특별 포상금을 받았다. 수상혁은 올해 3월20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2m34를 뛰어 우승했다. 당시 대회의 우승 상금은 3천달러(약 390만원)였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핸드볼 청소년 국가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 조별리그를 3연승으로 마쳤다. 김진순(인천비즈니스고)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일(현지시간) 북마케도니아 스키페에서 열린 제9회 세계여자청소년 핸드볼선수권대회 나흘째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슬로바키아를 34-30으로 물리쳤다. 사진은 슬로바키아와 경기에서 슛을 던지는 김지아.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韓, 세계여자청소년핸드볼 3연승 '씽씽'

슬로바키아 제쳐...조 1위 결선 진출

한국 여자핸드볼 청소년 국가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 조별리그를 3연승으로 마쳤다. 김진순(인천비즈니스고)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일(현지시간) 북마케도니아 스키페에서 열린 제9회 세계여자청소년 핸드볼선수권대회 나흘째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슬로바키아를 34-30으로 물리쳤다. 스위스, 독일, 슬로바키아 등 유럽 강팀들과 한 조에 묶여 고전이 예상됐던 우리나라는 3연승, 조 1위로 결선 리그에 진출했다. 한국은 F조 1, 2위 팀인 네덜란드, 루마니아와 결선 리그에서 대결해 8강 진출 여부를 정한다. /연합뉴스

올해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슬로바키아를 34-30으로 물리쳤다. 스위스, 독일, 슬로바키아 등 유럽 강팀들과 한 조에 묶여 고전이 예상됐던 우리나라는 3연승, 조 1위로 결선 리그에 진출했다. 한국은 F조 1, 2위 팀인 네덜란드, 루마니아와 결선 리그에서 대결해 8강 진출 여부를 정한다. /연합뉴스

결선 리그 3조의 한국과 독일, 네덜란드, 루마니아는 조별리그 성적을 안고 올라왔으며 상위 2개국이 8강에 진출한다. 한국이 1승, 네덜란드와 루마니아는 1무, 독일이 1패를 안고 다른 조에서 올라온 두 나라와 맞대결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4일 루마니아와 결선 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대한산악연맹, 10월 아시아·내년 8월 청소년 세계선수권 개최

대한산악연맹이 올해 10월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아시아선수권, 2023년 8월 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청소년 세계선수권 유치에 성공했다. 연맹은 3일 "10월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

한강 잠원공원에서 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연다. 내년 8월19일부터 27일까지는 서울에서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른다"고 밝혔다. 이번 아시아선수권은 15개국 300명 이상의 아

시아 최고 기량을 갖춘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이 참가한다. 내년 8월 청소년 세계선수권대회에는 약 50개국, 500명 이상의 스포츠클라이밍 꿈나무 선수들이 참가해 남녀 주니어(만 18-19세), 남녀 유스A(만 16-17세), 유스B(만 14-15세)로 나뉘어 각각 리드·볼더링·스피드 경기를 펼친다. /연합뉴스